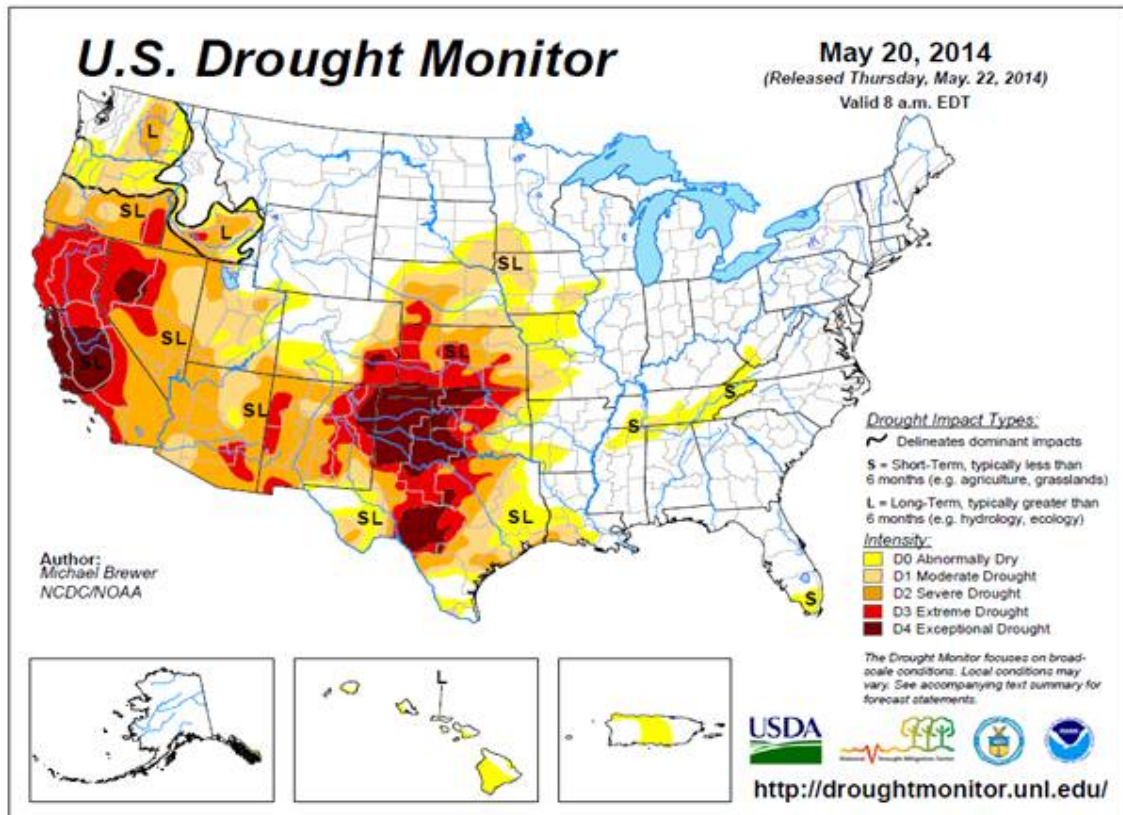


## 5월 2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1)

### □ 미국 기후 현황(05/18~05/24)



주말이 될수록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남부 고원평야지역에서는 집중 호우(지역적으로 2~4인치 이상)가 내렸으며, 비가 내리기 앞서 여름작물의 파종 작업이 촉진되었다. 비는 남부 평야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가을밀에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 늦게 내린 경향이 있었지만, 방목장, 목초지, 다양한 여름 곡물 등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었다. 중부 평야지대에서는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렸으며, 동부 캔자스 지역에서는 적어도 1~2인치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정하지 않았고, 남서부 캔자스와 남동부 콜로라도 지역을 우회하여 중요한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더 북쪽지역인 북부 평야지역과 중서부 상단지역으로 갈수록 파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였다. 북부 평야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3~6°F로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철 농작업은 지속적으로 서늘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콘벨트 지역에서는 때때로 내리는 소나기에 영향을 받았으며, 강수량이 많거나 야외 농작업을 중단시킬 만큼 내리지는 않았다. 남동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늦봄 농작업을 촉진시켜주었다. 북서부 지역의 따뜻하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남서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 지역의 강수량은 대체로 고립되거나 태풍전선의 발달과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중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 □ 농업 현황 요약(05/19~05/25)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지만, 오클라호마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였고, 뉴-멕시코와 텍사스 지역에서는 중요한 강우량이 기록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은 최근 파종된 작물들에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겨울 곡물의 성숙도에는 이로운을 주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기온은 일반적으로 중부 지역의 경우 평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평원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6°F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 옥수수

5월 25일 기준, 전국 옥수수 파종율은 88%로, 전년대비 4%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진행 상황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주에서는 평년대비 각각 7%p, 10%p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평균대비 앞선 것으로 관측되었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옥수수 발아율은 60%p 수준으로, 전년대비 11%p 앞선 상황이며, 5년 평균대비 4%p 뒤쳐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대두

18개 주요 대두 생산 주 가운데 17개 주에서 두 자리 수 파종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야외 작업을 하기에 풍부한 시간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5월 25일 기준, 전국 대두 파종율은 59%로, 전년대비 18%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3%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두 발아율은 25%p 수준으로, 전년대비 13%p 앞선 상황이지만, 5년 평균대비 2%p 뒤쳐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 ■ 가을 밀

5월 25일 기준, 출수기에 진입한 가을밀은 70%로 전년대비 12%p 앞섰으나, 5년 평균 대비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3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 보다는 다소 높고,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 쌀

5월 25일 기준, 금년 쌀 파종율은 95%로 전년 동기대비 6%p 앞섰고, 5년 평균 대비 4%p 빠른 수준이다.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파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발아율은 80%로 전년도 동기 대비 6%p 앞섰지만, 5년 평균 대비 3%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67%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 전년도 동기 대비 8%p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 세계 기후 현황(05/18~05/24)

■ 유럽: 홍수가 발생한 발칸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다시 돌아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나

기와 천둥번개를 동반한 날씨가 발달하였다. 지난 주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남동부 유럽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주 폭풍은 지역적으로 역사상 기록될 강수량과 피해를 야기하였지만, 유럽 곡물 생산 지역에는 좋은 영향을 주었다.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은 넓은 지역에 소나기와 폭풍우가 형성되게 하였으며, 폭우는(국지적으로 50mm 이상) 서부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서부와 체코에 주로 내렸다. 결과적으로 토양 수분은 가을밀의 충전과 개화를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었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날씨(평년대비 3-7°C 높음)는 평년보다 한 달 앞선 생육상태를 가져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소나기(5-25mm)가 내렸으며, 겨울 곡물의 성숙도와 수확은 지연시켰지만, 관개가 필요한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충분한 수분을 제공해 주었다.

- 구소련(서부): 2주 연속 정체된 날씨 패턴은 러시아 지역에는 고온 현상을 발생시켰고, 중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폭우가 내리게 하였다. 정체된 고기압 지역인 러시아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맑고 더운 날씨가 유지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으로 나타나 가을밀의 재생산에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 대체로 가을밀은 개화단계에 기온에 민감한 작물로 기온이 35°C 이상이 될 경우 단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중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10-60 mm)와 폭풍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옥수수와 소곡물류에 요구되는 토양 수분의 양은 증대시켰지만, 반면 농작업은 지연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꾸준히 내렸으며, 북동부 지역에서도 주초에 12mm정도의 비가 내렸다. 옥수수와 대두의 출수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북부 중국 평야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가을밀의 성숙을 도와주었으며, 15-40mm의 비가 내려 최근 파종된 여름작물의 수분 공급에 이로웠다. 양쯔계곡 유역에서는 10-25mm의 비가 내렸는데, 평년보다 많은 양이며, 옥수수, 면화, 쌀의 생육상태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남부 중국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렸으며, 한 주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 호주: 잠시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어, 겨울 작물의 파종을 촉진시켰으며, 서부 호주 지역에서는 비(10-25 mm)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의 발아와 출수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는 넓은 곳에서 산발적인 소나기(1-5 mm, 국지적으로 10 mm 이상)가 주요 농업생산지역에 내렸으며, 조생 가을 곡물과 유채의 발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북부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2-10mm)가 내렸으며 표토층의 수분을 증진시켜주었고, 지역의 겨울 곡물들의 출수와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밀벨트 지역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기온은 20°C 초•중반으로 조사되었다.
- 아르헨티나: 계절에 맞지 않는 비가 전국에 지속적으로 내렸으며, 가을 농작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었다. 북부와 중부 아르헨티나 대부분 지역에서 총 강수량은 25~100mm이었으며, 폭우(50 mm이상)가 내린 지역은 Buenos Aires, 북부 Cordoba, Tucuman 이었다. 중부 아르헨티나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낮은 수준인 평

균 1~3°C를 기록하였다. 중부 Cordoba에서 남서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밤시간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나타났다.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인 다소 낮았고, 큰 비가 내리기 전 낮 최고 기온은 20°C 후반을 기록하였다. 5월 22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율은 31%p로, 전주대비 1%p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63% 대비 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두 수확율은 73%p로, 전년 90%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 남부와 서부의 주요 농업생산지역에 소나기가 확장되어 내렸으며, 미성숙한 작물의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었다. Mato Grosso에서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75mm이었으며, Rio Grande do Sul과 Santa Catarina 지역에서는 총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부 커피 생산지역인 Minas Gerais에서는 소량의 비(10 mm)가 내렸고, 북부 지역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는 소나기(10-50 mm)가 내려 옥수수의 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되었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평년대비 다소 더운 날씨(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2-3°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이 30°C 초·중반 기록) 북부 Goias와 Minas Gerais 지역에 계속되었다. 인근 Tocantins와 Bahia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고, 사프리카 옥수수, 면화의 발달이 서둘러졌다. 건조한 날씨(총 강수량은 25 mm 이하)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생산지역에 팽배하게 나타났다.